

나를 위한 함양

안녕하세요. 학우 여러분.

저는 조금 전에 학우 여러분

이라고 말했었습니다.

하지만 학우 여러분이라는

용어가 여러분을 제대로

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

않습니다. 세상에는

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으며.

얼마나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

있습니까? 아무리 비슷하다 해도

결코 같지는 않은 사람들이며.

여러분 역시 그 한 사람

한 사람 모두가 이 세계에서

오직 하나인 소중한 존재입니다.

여름을에서 죽은 사람,이란

만화를 읽었습니다. 저는

그 만화에 나오는 어떤 대사에

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.

주인공은 독백합니다.

어떤 일인지 그야말로

다른 사람들이 보기엔

여름을에서 죽은 사람과



성평등도서관 여가



GL00014529

서울시여성가족재단

녹지

2003년 37집

014529

0

화보 | No WAR 5

페미니스트의 고민 | 로빈의 말하기 | 페미니스트가 연애할 때 9

환경 |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먹은 강아지를 알고 있다 | 아름다운가게에 다녀오다 | 공기 팔아요~ 공기 사세요~ | 부록 27

문화 | 아라키전에 대한 정체불명의 글 | 그들의 투쟁기 | 드라마는 계속되어야 한다 | 일본 드라마 속에서 길을 잃다 55

취업 | 교수님, 저희 취직할 수 있나요? 89

새내기 | 항해를 위해선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|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 - 버자이너 모놀로그 사건 95

수습 | '청소년 성매매' 와 '성매매' 그리고 남성의 일상적인 '성매매' 문화 107

복지 | 3인의 복지편집위원에게 물었다 119

평가서 | 문강형준 | 조김경하 123

서가 | 나는 평화를 희망한다 | 사춘기 | 어둠의 원손 | 자기만의 방 | 침묵으로 지은 집 132